

설 법

「오래된 새 길」을 찾아서

— 송산 박길진 초대 총장님의 동양대학 시절 발자취를 찾아 —

◎ 동양대학의 현재

◎ 동양대학 문학부의 현재

◎ 동양대학 설립자 기념관

◎ 동양대학과 송산 박길진 초대총장님

◎ 동양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해제 안내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8시20분에 대학선방(송산기념관 2층)에서 학교의 발전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안녕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기도는 12월 13일(금) 마무리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당운영위원회

2019학년도 마지막 교당운영위원회가 12월 13일(금) 12시 20분에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교당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법회 안내

원기 104년 12월 18일 수요일은 결산법회로 이루어집니다. 함께하시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정전 '대종경 제2장 교의품 1장~23장'(p111~125)입니다.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주는 경전공부로 거듭나는 한 주 되세요~

원기 104년

名節大齋

명절대재(名節大齋)

대재(大齋)란 소태산대종사를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삼세의 모든 성현, 부모 일체생명을 길이 추모하여 합동 향례를 올리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의례로서 모든 교도가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바치며, 위의를 갖추어서 법계향화(法系香火)가 한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1926년(원기11)에 제정한 원불교 4기념례의 하나인 '명절기념'을 12월 1일에 행하는 명절대재로 바뀌서 거행한다. 1943년(원기28)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 열반일을 기념하여 6월 1일에 육일대재를 봉행하면서 해마다 두 번씩 향례하게 되었다. 명절대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호념하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향례로서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육일대재는 제 날에 거행하지만, 명절대재는 12월 1일 전후로 가까운 날에 할 수 있다.

■ 일 시 : 원기 104년(2019) 12월 4일(수) 오전 9시

■ 장 소 : 송산기념관 3층 대법당

圓光大學校學敎堂
<http://won.wku.ac.kr>

식 순

- 사회 : 최원식 교무
- 는 일어서서

개 식

입 정

묘위보고 본좌: 9,405위 별좌: 11,030위 /총 입묘수: 20,435위

봉 청 ○ 地陀圓 박덕연 주임교무

고축 및 찬송

• 교당대표 고축 · 찬송 地陀圓 박덕연 주임교무
성가 6장(대종사 찬송가)
등단(교당운영위원)

• 학교대표 고축 · 찬송 學山 박명수 총장
성가47장(열반기념가)
등단(학교운영위원)

• 학생대표 고축 · 찬송 김형석 총학생회장
성가75장(삼동윤리가)
등단(50대 총학임원)

일동헌배 ○ 다함께

독 경(일원상서원문) 다함께

설 법 「오래된 새 길」을 찾아서 學山 박명수 총장

폐 식

묘위보고

가. 본 좌 9,405위

- 1) 대종사 소태산 여래위
- 2) 종 사 위 100위
- 3) 대 봉 도 위 66위
- 4) 대 호 법 위 70위
- 5) 전무출신 위 321위
 - (1) 1 좌위 164위
 - (2) 2 좌위 82위
 - (3) 3 좌위 41위
 - (4) 4 좌위 22위
 - (5) 5 좌위 12위
- 6) 거진출진 위 8,847위
 - (1) 1 좌위 134위
 - (2) 2 좌위 1,061위
 - (3) 3 좌위 2,181위
 - (4) 4 좌위 2,108위
 - (5) 5 좌위 3,363위

나. 별 좌 11,030위

- 1) 대 회 사 위 10위
- 2) 중 회 사 위 280위
- 3) 소 회 사 위 10,740위

* 본좌 · 별좌위 전체 총 입묘수 : 20,435위입니다.

• **본좌**는 대종사위를 비롯한 재가 출가의 역대 선령 열위.

• **별좌**는 회사위와 일반부모 선조위 그리고 역대 선성위와 일체 생령위를 말함.

• **추원보본(追遠報本)** : 지나간 업적을 추급(追及)하여 사모하고, 그 근본을 찾아 보은하는 것. 선진이나 조상의 훌륭한 업적과 공덕을 추모하고 제사하며 후진 대대로 그 근본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보은하는 것. 육일대재나 명절대재를 모시는 큰 뜻은 추원보본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법계향화(法系香火)** : 대도정법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 주고 이어 받는 마음의 향불이라는 뜻. 소태산 대종사와 삼세제불제성 그리고 교단의 선진을 추모하는 간절한 정성으로 그 법을 이어받아 길이길이 전해 가는 정성.